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16.(금) 06:00 < 6.16.(금) 석간 > 배포 2023. 6. 15.(목)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 확장현실(XR) 부품-세트-서비스업계 간 전방위 협력체계 구축
- 확장현실(XR)산업 수출·투자 애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 16.(금) 서울 확장현실(XR) 실증센터에서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을 출범하였다.

*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

확장현실(XR)산업은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39.7%('21 : 189억 달러 → '26 : 1,007억 달러)로 전망(출처: Artillery, '22. 12.)되는 유망시장으로서,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텔레비전(TV) 시장의 정체를 극복하는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애플, 메타 등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의 참여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산업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산업부가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확장현실(XR) 부품-세트-서비스기업, 유관기관들은 국내 공급망 구축 및 협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을 결성하였다. 앞으로, 참여기업들은 확장현실(XR) 기술 이행안(로드맵) 수립, 협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장현실(XR)산업의 주요 현안과 수출·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마련되어 해외시장 개척,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오늘 출범한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을 통해 패널, 센서, 광학 소프트웨어 등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세계 확장현실(XR)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확장현실(XR) 기기와 관련 핵심 부품이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실 디스플레이가전팀	책임자	과 장	조성경 (044-203-4255)
		담당자	사무관	김아름 (044-203-4257)

新성장 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및 업계 간담회 계획(안)**

□ 행사 개요

○ (목적) 차세대 전자산업인 XR 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을 통해 **XR 산업 육성** 본격 추진

* XR은 디스플레이, 광학 등 후방산업과 서비스, 콘텐츠 등 전방산업까지 협력생태계가 중요한 분야로 산업구심점 역할을 위한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 (일시/장소) '23.6.16(금) 10:30 / 서울 XR 실증센터

○ (참석자) 산업부, XR기기·부품·서비스업계, 유관기관 등 14명

▸ **(정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디스플레이가전팀장

▸ **(기업)** (세트) 삼성전자, LG전자, 피앤씨솔루션, (부품)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레티널, (서비스) 버넥트

▸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주요 내용

○ (출범식) XR 융합산업 동맹 운영계획 발표, 기념촬영 및 실증센터 참관

○ (간담회) 산업·수출 발전방향 제언 및 애로·건의사항 논의

□ 세부 일정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출범식)	10:30~10:32	2′	○ 개회 선언	사회자
	10:32~10:37	5′	○ 모두 발언	산업정책실장
	10:37~10:42	5′	○ XR융합산업 동맹 운영계획 발표	KEA XR센터장
	10:42~10:44	2′	○ 기념촬영	
	10:44~10:57	13′	○ 실증센터 시찰	全 참석자
	10:57~11:00	3′	자리 이동	
2부 (간담회)	11:00~12:00	60′	○ XR 산업/수출 간담회	全 참석자